



<아시아박물관 기행>
베트남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Museum of Champa Sculpture, Da Nang, Vietnam

고정은*
Jeong Eun KOH

베트남에는 현재 남부지역의 호찌민시 역사박물관, 중부지역의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그리고 북부지역의 하노이시 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각 도시마다 크고 작은 박물관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은 중부 베트남을 중심으로 크게 활약한 참파왕국의 문화유산이 대거 소장되어 있는 곳으로, 전시유물은 400점에 이른다. 힌두교 및 불교 관련 유물이 대부분으로 존상별로는 힌두조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바, 비슈누, 브라흐마, 인드라, 크리슈나, 가네샤, 스칸다, 아그니, 야마, 바루나, 바유, 이사나, 스리야, 발라라마, 칼라, 우마, 락슈미, 사라스와티, 링가(링감), 제단(기단부조 포함), 드바라팔라(수문신), 압살라, 가루다, 킨나라, 합사, 마카라, 용 등 매우 다양한 힌두신상과 기타조상이 소장되어 있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지역원 HK연구교수, kohje@iseas.kr



<그림 1>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전경.
출처: 필자사진(이 글의 모든 사진은 필자가 촬영한 것임)

고, 불상도 몇 점 눈에 띈다. 이글에서는 몇몇 힌두교 존상을 중심으로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논고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먼저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은 미선유적군의 E그룹 주사당에 있던 것을 참파조각박물관에 복원해 놓은 ‘祭壇’이다<그림 2>. 미선 E그룹 주사당에서 볼 수 있는 조각양식을 기준으로 한 것을 미선 E1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8세기부터 9세기까지 걸친 시기에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 기단에는 정면 및 측면부에 다양한 부조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먼저 기단부 정면의 중앙의 계단에는 상하로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무희의 모습이 보이며, 바라보아 왼쪽에는 인도 전래의 상상 속의 괴수인 마카라의 머리 장식을 올린 기둥 사이에 플러처럼 생긴 악기를 불고 있는 인물, 오른쪽에는 역시 마카라의



<그림 2> 제단. 참파. 미선티양식. 8세기후반. 베트남 광남성 즈이센현 미선 출토. 사암. 기단 높이65cm.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장식이 있는 기둥 사이에 앉아 하프를 연주하는 인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바라문들의 일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도상이 표현되어 있어 당시의 풍속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또 다양한 곳에서 자주 나타나는 꽃문양은 인도 굽타양식의 당초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어서 인도와의 연관성도 찾을 수 있다. 인도문화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문화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전개 과정을 거치면서, 참파 독자의 문화요소가 이곳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유사한 또 하나의 제단을 들 수 있는데, 차큐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링가제단<그림 3>이다.

차큐(Tra Kieu)유적은 베트남 중부지역의 다낭시에서 남쪽으로 약 28km 떨어진 투본강 지류연안에 위치하는데, 중국사료에서 보이는 林邑 즉 참파국의 도성인 ‘典冲’에 비정되곤 한다. 근년의 발굴조사에 따르면, 동서로 약 1.5km, 남북으로 약 0.55km의 규모에 달하는 성벽이 있던 도시였음이 밝혀졌고, 2-3세기의 참파가 출현할 시기에 속하는 유물과 유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영향으로



<그림 3> 링가제단. 10세기후반. 베트남 팡남성 즈이센현 차큐 출토. 사암. 높이190cm.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생각되는 사람 얼굴 모습의 기와도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 시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6-7세기의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도 출토되었고, 10세기후반까지의 전기차큐양식, 그리고 11세기전반부터의 후기차큐양식 등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다수 발굴되었다. 출토유물의 대부분은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형기단 위에 원형의 앙련과 반련, 그리고 환조로 구성된 대좌를 두고, 그 위에 링가와 요니를 올려놓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최하단의 방형기단 사면에는 찬탄하는 모습과 춤을 추는 모습의 남녀 인물상과 『라마야나』의 한 부분을 부조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부분에 보이는 조상기법은 간결하지만, 표현성이 매우 뛰어나 조각가의 레벨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사자 및 연화와 같은 동식물 문양표현도 깔끔하고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고도의 조각기법을 통한 예술성이 풍부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점에서 제작연대를 인도의 영향과 관련해서 이른 시기로 소급하는 견해도 있지만, 참파시대의 양식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10세기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쿠옹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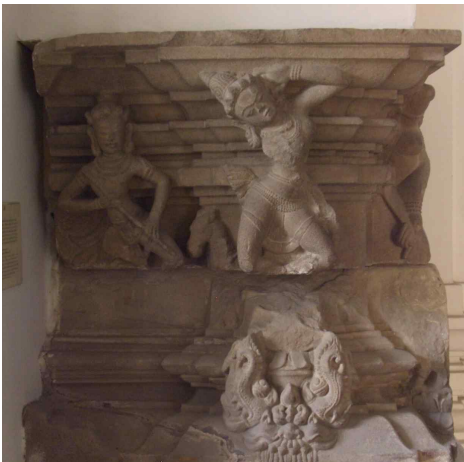


<그림 4> 링가제단
기단부의 루드라의
화살을 꺼내는
라마상(세부표현).

유적에 나타난 새로운 양식의 출현 이후, 참파조각은 새로운 세련미를 추가하게 되어 인물상도 종래의 동주옹 양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경쾌하게 표현되기에 이른다.

방형기단부 사면에 나타난 『라마야나』의 한 부분은 ‘바린과 수그리바’라는 원숭이왕들의 전쟁에 맞닥뜨린 라마가 수그리바를 도와 적군인 바린왕을 공격하기 위해 번개의 위력을 가진 루드라의 화살을 꺼내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그림 4>. 이 설화는 부조조각으로 자주 선택되면서 도상으로서의 정형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여기서는 머리카락을 등글게 묶어서 뒤로 돌려 정돈하는 두발모습을 볼 수 있어 당시의 풍속을 짐작케 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림 5> 압살라(제단 부분). 11세기전반. 베트남 광남성 즈이센현 차큐 출토. 사암.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그림 5>의 작품은 역시 힌두교사원의 본존격인 시바링가 제단을 구성하는 기단의 한 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신체를 극단적으로 굴곡시켜 춤을 추는 동작을 취하는 천녀 압살라의 모습에서 깔끔하고 우아한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으로 알려진 시바상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베트남 참파왕국의 대표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는 미선C1에서 출토된 시바입상<그림 6>을 들 수 있다. 이 상은 높이가 193cm나 되는 거상으로 팔꿈치까지의 양손이 모두 결실되었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양호한 편이다. 또 머리 위로 틀어 올린 두발의 정면과 이마 부분이 손상되어, 시바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두발 정면의 초생달(三日月)과 이마에 새겨진 제3의 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래는 표현되어 있었을 것이다. 상반신은 나체형이고 하반신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褶을 휘감고 있는데, 장신의 키에 넓은 어깨, 그리고 가슴과 복부에는 적당한 근육이 표현되어 있고, 정면을 향해 꼴꼴이 서 있는 모습에서 당당함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



<그림 6> 시바상. 12세기후반-14세기. 베트남 빈딘성 안논현 타프 맘출토. 사암. 높이120cm.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은 지금은 캄보디아에 속한 9세기전반의 크렌 양식말기에서 프리아코 양식에 걸친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엿보이는 약간 어색한 미소를 띤 얼굴모습과 하반신에 착용한 의복 정면에 표현된 옷단 끝의 처리는 참파조각에서 보이는 독특한 것으로, 9세기말에서 10세기초기에 나타나는 동일한 팡남성 당빈현의 동주옹 양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을 시사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바신을 표현한 작품 중에서 위의 작품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그림 7>을 들 수 있다. 팡남성보다 아래에 위치한 빈딘(Binh Dinh)성 안논(An Nhon)현 타프 맘(Thap Mam)에서 출토한 것이다. 11세기에서 12세기로 되면 참파왕국의 중심은 비자야로 불



<그림 7> 시바상. 12세기후반-14세기. 베트남 빈딘성 안농현 타프 만출토.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리던 궤녕 주변의 빈딘지구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타프 만 사당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상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를 가리켜 타프 만 양식이라고 한다. 이 양식은 대체로 신체는 살이 오르고 비대한 모습으로 조형화되지만, 세부표현에서는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과장된 모습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시바의 탄다바(舞踏), 즉 춤을 추는 시바상을 표현한 것으로, 인도의 팔라왕조나, 특히 엘로라석굴에 나타난 무답상과 같은 수많은 팔과 무기를 든 활력에 찬 도상을 아니지만,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깎지를 끼고, 다른 두 손은 밑

으로 내려 막대기와 같은 것을 쥐고, 발바닥을 서로 맞댄 모습 등에서 춤을 추는 시바상의 활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락슈민드라 로케슈바라입상이라 불리는 작품<그림 8, 8-1>도 매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은 짱남성 당빈현의 동주옹에서 출토하였는데, 9세기말이나 10세기초의 참파의 동주옹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머리카락을 위로 틀어 올려 장식한 두발



<그림 8, 8-1> 락슈민드라 로케슈바라입상. 9세기말-10세기초. 베트남 짱남성 당빈현 동주옹 출토. 청동. 높이114cm. 다낭시 참파박물관.

정면에 화불좌상을 배치하고, 평평하게 처리한 이마에는 제3의 눈을 표현하고 있는 여성형의 신상이다. 왼손의 모습은 첫째와 두 번째 손가락만 구부려서 서로 맞대고 있고, 나머지 손가락은 바로 펴고 있는 듯하지만, 손끝이 손상되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오른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연화줄기와 같은 것이 끼워져 있다. 이와 같은 손의 형태는 ‘로케슈바라’라고 하는 世自在菩薩, 혹은 觀自在觀音菩薩이라고도 불리는 여성 神格인 프라주나파라미타(般若波羅密多菩薩), 또는 타라(多羅菩薩)에 비정되지만, 손의 모습이 정확하지 않아 추측하는데 그쳐야 할 것 같다. 한편, 데바라자(神王) 신앙이라고 하여, 왕이나 왕비가 살아 있을 때나 또는 사후에 힌두교나 불교 존상과의 합체신으로서의 존칭을 갖는 일이 다수 행해졌는데, 이 작품도 당시의 神王신앙을 바탕으로 한 특이한 조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세부표현을 살펴보면, 양 눈썹이 이어는 미간 위쪽에 표현된 제3의 눈은 움푹하게 파여져 있는데, 이처럼 제3의 눈에 별도로 만든 것을 끼워 넣는 기법의 작품은 매우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늘고 긴 체구에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얼굴모습, 둥글고 탄력적인 가슴의 표현, 그리고 하반신에 줄무늬와 다양한 문양을 새긴 산포트(한 장의 천을 허리에 휘감아 착용하는 일종의 긴 스커트로 長裙이라고도 함)를 허리선보다 높게 착용하는 등 고도의 제작기법으로 조성된 동주용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임이 틀림없다.

다음으로 시바의 또 다른 형상인 마하칼라(Mahakala) 흉상<그림 9>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참파조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 중에서 차큐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토한 것이다. 차큐지역은 林邑의 고도로 1927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최초로 프랑스크동학원의 J. Y. 클레이에 의해 대규모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힌두유물이 대거 출토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작품은 허리 이하의 하반신과 양팔이 손상되었기는 하지만, 서로 이어진 두 눈썹, 둥글게 부각된 눈동자와 콧날이 그리 높지 않은 뚱뚱한 코, 두터운 입술, 약간 각이진 넓은 얼굴형, 그리고 탄력있는 상체표현 등에서 역강함을 느낄 수 있다. 보관장식과 머리 위로 빗어 올려 정상부근에서 상투처럼 솟아오



<그림 9> 시바상(마하칼라 흉상). 참파. 10세기 후반. 베트남 꽝남성 즈이젠현 차큐출토. 사암. 높이 126cm. 다낭시 참파박물관.

른 두발의 형태는 이 시기 이후에 일반화된 모습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차큐에서 출토된 약사상<그림 10>은 고풍을 간직한 작품으로, 둥글게 말린 두발 형태에 커다란 귀걸이를 달고, 서로 이어진 눈썹과 낮고 콧망울이 큰 코, 두툼고 큰 입, 장방형의 얼굴모습, 어깨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듯한 어색한 어깨 표현, 탄력적인 근육의 표현이 보이는 동체 및 다리에 비해 밋밋하게 처리된 양팔과 허리에 댄 경직된 양손의 표현, 그리고 교차한 발바닥의 표현 등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초기의 작품이 느껴진다. 또한 머리 좌우의 나뭇잎 표현을 통해 타이의 드

바라바티 양식의 조각과의 유사점도 엿보인다.

꽝남성 탐 키(Tam Ky)의 안미(An My)에서 출토한 남신상은 남녀 2神 중의 하나이다. 머리카락을 위로 빗어 올려 정상부에서 높게 틀어 올렸고, 둥글게 곁이 진 머리카락을 이마 앞부분과 양옆으로 어깨까지 늘어뜨린 특이한 머리모양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삼면에 장식한 한 관이 씌워져 있다. 양쪽 귀에는 앞서 설명한 약사상과 마찬가지로 참파인 특유의 관습이라고 추정되는 커다란 원형의 귀걸이



<그림 10> 약사상. 6-7세기. 베트남 꽝남성 즈이젠현 차큐출토. 사암. 높이 68cm.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를 착용하고 있다. 두 눈썹은 분명하진 않지만, 이어진 듯이 보이고, 눈을 크게 뜬 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 커다란 코와 입 등의 모습은 약사상<그림 10>을 연상시킨다. 다만 약간 둥글게 처리된 얼굴형이나 수염을 기른 모습, 그리고 넓고 평판한 어깨표현에서 약사상보다 조금 진전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폭이 넓은 목걸이 장식에는 독특한 당초문이 새겨져 있고, 머리 뒷면에는 바퀴살 모양의 타원형 두광의 표현이 있다. 이 작품과 한 쌍을 이루는 작품은 여신상을 표현한 것으로 온화하고 탄력적인 모습으로 보아, 당시 神王신앙에 의해 신격화된 왕과 왕비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안미양식의 경우 제작연대를 8세기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머리장식의 경우 중국의 5세기 후반부터 6세기초기의 보살의 것과 상통하는 점도 있어서, 동남아시아와 중국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겠다.